

# 자원개발·친환경 분야 개척... 상사업계, 수익원 확보 총력

**삼성물산** 美·호주서 태양광 사업 작년 미국서 5800만 弗 매각 이익  
**포스코인터** 작년 영업이익 28.9% ↑ 8년간 에너지강제 223만t 판매 목표  
**SK네트웍스** AI전문 투자회사 전환 영업의 규모 현재의 3배 수준 목표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삼성물산

국내 상사업계가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세계 각지에 구축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사업계가 전반적인 매출 감소세 속에서도 대부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현대코퍼레이션 등 5대 상사의 작년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4조6175억원 대비 6.4% 늘어난

4조9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에는 상사업계들의 신사업 부문의 투자를 통한 수익 개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영역인 트레이딩 부문에서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

를 극복하고, 자원개발과 친환경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미국, 호주 등에서 태양광 개발 사업을 확장한다. 선진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고 관련 제도가 안정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사는 초기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다.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 연결 조사를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발전소 착공 이전까지 사업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 '태양광 사업권'이라는 일종의 무형 자산을 수익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미국에서 2200만달러의 매각 이익을 거뒀고, 지난해엔 5800만달러의 태양광 사업개발 매각이익을 거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1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 합병을 통해 에너지 밸류체인을 확장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친환경 소재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에너지강제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 223만톤의 판매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친환경 특화 강재인 '그리넷'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의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해상탄소저장소 개발, 배터리·부품·모터·차체 등의 사업 확장에 나선다.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는 2030년 연 35만톤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상사였던 SK네트웍스는 지난 2월 기업설명회를 통해 3년 이내 완전한 인공지능(AI) 전문 투자회사로 탈바꿈하고 영업이익의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I 분야에 직접 투자함과 동시에 자회사의 AI 역량도 끌어올려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회사는 2026년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에 이르는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 선포했다.

상사업계 관계자는 "대의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상사업계는 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韓 제약사, 美서 항암치료제 경쟁력 알린다

내달 5일~10일 'AACR 2024' GC셀 '이문셀엘씨주' 데이터 발표 유한양행,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공개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미국 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4)'에 나선다.

미국암학회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 업계는 항암 치료제 영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헬스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규 항암제의 지속적인 도입, 장기 치료에 의학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4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씨셀(GC셀)은 이번 AACR 2024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205/GCC2005'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문셀엘씨주'의 실사용데이터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을 제외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악성 종양이다.

지씨셀의 'GL205/GCC2005'는 악성 T세포 림프종 종양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겟으로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동종 제대혈 유래 NK세포에 장착한 신규 모델리이다. 대부분의 T세포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겟으로 해 넓은 환자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씨셀은 기존 승인된 표적치료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이문셀엘씨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 실사용데이터 분석결과도 공유한다.

실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환자군 및 다양한 병용 요법들을 분석해 추후 이문셀엘씨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YH32367과 YH4172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YH32367은 유한양행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다수의 HER2 발현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으로 시험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H41723의 경우 이번 학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PD-L1, TIGIT 이중 타겟 면역항암제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코프로비엠-SK온-포드합작캐나다퀘벡공장가상도. /양성문 기자 ysw@

## 현대무백스, 캐나다서 물류시스템 수주

200억 규모 에코프로비엠 공장 이달부터 시행, 2026년 완료 계획

현대무백스가 에코프로비엠 캐나다 퀘벡 공장의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올해 2차전지 신사업 성과의 첫 포문을 열었다.

7일 현대무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에코프로비엠과 약 200억 원 규모 통합 물류자동화 공급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첨단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은 SK온, 포드와 합작해 캐나다 퀘벡에 초대형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 후 연간

4만 5000톤(전기차 54만대분)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무백스는 이 공장에 자동창고시스템(AS/RS)을 비롯해 양극재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물류 설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무백스 기술로 개발한 SRM(2세대 스테커크레인), AGV(무인이송로봇), 고속수직반송기 등의 첨단 장비와 함께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WMS 등 고도화된 물류IT 설루션까지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GV는 전(全) 방향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델로, 양극재 공정에 20대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문 기자 ysw@

## K-스타트업 지원 재외공관 7곳 선정

중기부, 튀니지·샌프란시스코 등 현지 투자상담회 등 프로그램 지원

정부가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선정을 끝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사업 시행 공관은 ▲튀니지(대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사우디(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호치민(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베트남(대사관) 등 7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인프라를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에선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공관별 최대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외교부는 범부처 차원의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귀뚜라미보일러 가스보일러 제품 4종 '재난 안전 기술' 인증

귀뚜라미보일러가 업계 최초로 2025년 '재난 안전 기술'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았다.

귀뚜라미는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의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이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거꾸로 ECO 콘덴싱 L11 ▲트윈알파 ECOL10 등 가스보일러 4종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경력단절여성 창업 육성 나선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총실현 이행을 위해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우선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으며, 여학생 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원에서 9000억원 확대해 12조 2000억원으로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